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음 10월 23일) 제16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H5N6형 AI 확산세 심상치 않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국에서 15명 감염
6명 사망해 위험성 커

전북·전남·경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도, 김제 금구서 방역 나서
긴급 방역협의회도 열어



지난 16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및 전남 해남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시군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세가 심상찮다.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북은 물론 충북과 전남, 경기지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 금구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이날 오전 들어와 방역당국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도는 현장 간이 키트 검사 결과 대부분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에 따라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다.

앞선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지난 10일엔 익산, 15일엔 해남(닭 2,000여 마리 폐사), 18일엔 충북 음성 육용 오리 농가와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 경기 양주 등 AI 의심신고가 이어졌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서해안을 따라 중부 내륙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검출된 고병원성 AI(H5N6)는 국내에선 처음 검출된 바이러스로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전세계에서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AI는 작년 이후 세계 46개국에서 2,096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앞선 예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가 폐사율도 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열흘 사이에 7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가금류 농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16일 전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불과 5일만에 충북과 전남, 경기도지역까지 퍼진 것이다.

이 같은 확산세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군 신태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충남·북을 거쳐 1월 28일 전남 영암 오리농장까지 12일 사이에 13건의 의심축이 신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2014년 당시 AI는 5월 말까지 전국 70여 개 시군, 530여개 농장에서 발생해 닭과 오리 1,400여만 마리가 살처

분됐다. 피해액만 1,800억원이 넘었다. 폐사율도 문제다.

지난해에는 오리가 비틀거리다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며칠 새 오리가 계속 죽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죽는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예년과 달리 하루 이를 새 곳곳에서 오리가 폐사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오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일부 농장주들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엔 유입된 H5N6형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북도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도는 이날 AI확산과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갖고 "생산지단체 및 계열사, 행정에서 방역교육 및 지도·점검과 철새방역관리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야3당, 김기춘·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검찰 수사결과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3당은 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재차 압박하기 시작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에서 "검찰은 நட장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시간을 썼다. 우병우를 봐주고, 뇌물죄를 제외해

서 대통령을 봐주고, 대기업도 봐줬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우병우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가 꼬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했는데 136번을 찌러서 우병우는 물러갔다.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며 "우리 전체 의원들과 전체 당직자·보좌관들

이 다 스스로를 (당내) 헌정파괴 진상 조사위원회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각종 제보를 잘 관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김 전 실장에 대한 공세를 펴라고 주문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김 전 실장은 범법 밖에 있으며 인사전황으로 검찰조치를 사유화한 우 전 수석은 여전히 검찰 위에서 국민을 비웃고 있다"며 "헌정유린의 두 몸통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면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그 몸통의 중요 장기"라고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뉴시스

어린이 임신부의 필수 비타민 '엽산'

이젠 '김치'로 먹는다

농진청 정보 제공
열무김치에 100g당
78㎍ 가장 많이 함유
배추김치는 55㎍
각두기에는 27㎍



40g 분량의 배추김치를 식사마다 하루 세 번 먹으면 유아성장·임신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 엽산의 1일 권장섭취량의 약 17%를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에 들어있는 엽산 함량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인 성인남녀(19세~65세) 1일 엽산 권장섭취량은 400㎍이며, 임신부는 620㎍, 수유부는 560㎍이다.

김치 종류별 엽산 함량을 보면 열무김치가 100g당 78㎍으로 가장 많이 들어 있고, 다음으로 파김치 76㎍, 부추김치 68㎍, 깻잎김치 67㎍, 얼갈이배추김치 58㎍ 등의 순이다.

대표적인 김장 김치인 배추김치에는 100g당 55㎍이 들어있으며, 즐겨먹는 총각김치에는 49㎍, 각두기에는 27㎍이 함유돼 있다.

김치 종류별로 엽산 함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김치의 주재료 및 부재료가 되는 배추, 무, 부추, 고추, 양파 등의 엽산 함량 차이에 따른 것이다.

김치 섭취만으로 부족한 엽산 1일 권장섭취량은 계란, 시금치, 감자, 당근, 해조류, 콩 등 엽

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다.

한편, 엽산은 DNA와 아미노산 합성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으로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유아기, 성장기와 여성의 임신기, 수유기에 필요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빈혈로 인한 허약감, 피로, 불안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임신부는 태아의 신경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정확한 엽산 섭취량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200종의 한국인 다소비 식품에 대한 엽산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한 자료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에 수록해 이듬해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최용민 농업연구사는 "김치는 단일식품으로는 다른 식품들에 비해 엽산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며, "엽산 결핍을 예방을 위해서는 매 식사마다 김치를 챙겨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재홍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기독교단체들도 시국선언

3면 지방의정연수원 전북에 설립해야

4면 '다올마당, 예산만 낭비'

6면 쌀 초과물량 전락 격리... 그러나

2016

전북 노래 자랑 및 경연대회



11월 27일

삼성문화회관 소강당

- ▶ 주최: 전주매일, 환경일보사
- ▶ 접수: 11월 25일
- ▶ 예선: 11월 26일
- ▶ 후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 ▶ 문의: 010-2131-0448(금병찬 환경신문본부장)

